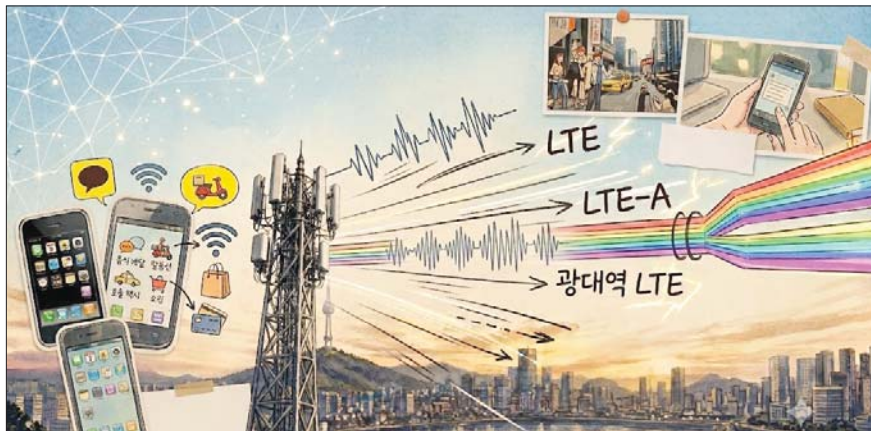


아이폰이 앞당긴 인터넷 속도전 플랫폼·배달·결제 판 다 바꿨다

통신의 진화

② 초고속 인터넷 시대

아이폰 국내 상륙… 와이파이 도입
갤럭시, 카카오톡 등 시장 선점 나서
통신사, 대용량 데이터 전송 위해
넓은 주파수 대역폭 확보 속도
SKT, 1.8GHz 확보로 우위 점해



AI에 의해 생성된 스마트폰 보급으로 급증하는 데이터를 소화하기 위해 속도 경쟁이 치열했던 4세대 이동통신 이미지.

운영체제(OS)를 과감히 버리고,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도입하며 아이폰에 대항했다.

이처럼 산업 구조가 급격히 바뀌자 통신사들의 속도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데이터 소비량은 급증했고 이를 끊임 없이 전송하려면 통신사들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통신사들은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해 넓은 주파수 대역폭을 확보해야만 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011년 동시에 LTE(통명 에블루션) 서비스로 맞붙었다.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활용해 여러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는 OFDMA 기술이 핵심이었다. 초기 LTE의 최대 속도는 75Mbps 수준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제시한 규격에 미치지지는 못했지만, 점차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에 걸맞는 기술을 적용하며 속도

를 높여갔다.

통신 3사 중에서는 정부의 주파수 경매제가 처음 도입된 당시, SK텔레콤이 약 1조원을 지불하고 황금 주파수로 불리던 1.8GHz 대역을 확보하며 속도 경쟁의 우위를 점했다. 이후 LG유플러스와 함께 2013년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묶어 전송 속도를 높이는 기술을 활용해 LTE-어드밴스를 상용화했다. 같은 해 KT는 기존 LTE보다 넓은 대역폭을 확보하며 광대역 LTE 경쟁에 나설 수 있었다.

통신사들의 속도 경쟁은 또다시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모바일로 음식 배달을 주문하거나 택시를 호출하고, 지갑 대신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이용자들의 생활 전반에 모바일 인터넷이 스며 들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엔트로픽, 공익 펀드에 지분 5% 배정

기업가치 50% 오를 때마다 2% 추가
전체 지분 20% 공익 목적으로 사용
AI 시대 새로운 기업 지배구조 실험

엔트로픽은 18일(현지시간) 주주 승인을 전제로 회사 지분 5%를 공익 목적의 '엔트로픽 퍼블릭 베네핏 펀드'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엔트로픽은 기업가치가 기준점보다 50% 오를 때마다 이사회 재량으로 지분 2%를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펀드는 엔트로픽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유한책임회사(LLC)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회사는 기부 방식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이 같은 구조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펀드가 보유한 자사 지분을 미국 안팎의 로비나 정치 기부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엔트로픽은 전통적인 비영리단체에 대한 대규모 기부와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

지원을 펀드 활용 사례로 들었다. 인공지능(AI)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는 활동도 포함했다. 회사는 "AI가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많은 노동자에게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 문제를 연구하고 대응하는 데 이미 2억달러를 약속했지만, AI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새 펀드가 이런 대응을 추진할 유연성을 갖출 것이라는 취지다.

추가 배정의 기준이 되는 기업가치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엔트로픽은 향후 몇 달 안에 펀드의 지배구조와 가치 기준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엔트로픽은 공동창업자들이 보유지분의 80%를 기부하기로 약속했고, 직원 절반가량이 회사의 지분 기부 매칭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펀드 발표와 기존 기부 약속을 합쳐 전체 지

분 약 20%가 공익 목적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픈AI는 비영리재단이 영리법인 지분을 보유하고 이사회 선임권도 갖는 구조다. 오픈AI는 지난해 10월 구조 재편안을 발표했다. 재편 완료 시점 기준 비영리 오픈AI 재단은 영리법인 오픈AI 그룹 지분 26%를 보유하고, 그룹 이사 전원을 선임하고 교체할 권한도 갖는다.

전상경 한양대 교수는 "두 회사의 공익 구조는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AI 시대의 새로운 기업 지배구조 실험"이라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공익기업이나 재단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얼마나 충실하게 대변할 수 있는지, 그 책임을 누가 감독할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AP통신은 엔트로픽이 이르면 내년 말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김보민 기자 kbm@

네이버클라우드, 기업 보안 자가진단 지원

21개 문항 응답으로 무료 점검

네이버클라우드의 기업이 자사 보안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네이버클라우드 보안 자가진단' 사이트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기업은 온라인 설문에 답하는 것만으로 개선을 검토할 보안 영역을 확인

할 수 있다.

보안 자가진단은 7개 영역, 21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점검 영역에는 네트워크 보안과 접근제어, 데이터 보호·암호화 등이 포함된다. 회사는 점검 범위에서 '인공지능(AI) 활용 환경 보안 영역'을 추가한 것을 강조했다.

AI 활용 환경 보안 영역에서는 기업이 AI를 이용한 자동화 공격에 대응할 체계를 갖췄는지 점검한다. 임직원외 외부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 민감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응답을 마치면 주요 규제 사항을 안내 받는다.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는 참고할 보안 방향과 관련 서비스를 소개하고, 필요하면 보안 전문가 상담으로 연결한다.

/김보민 기자

“단말기 지원금 허위·과장광고 1.7배 늘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발의 추진
이용자 피해 구제·관리 제도 없어



승낙제도를 통해 판매자의 자격을 검증하고, 이용자 피해와 법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철회·제재하고 있다"며 "그러나 광고 알선·중

개 업체들은 본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파악된 피해 사례를 보면, 이용자들은 일명 '저시시세표'를 내세운 광고를 보고 매장에 찾아가는데, 가입할 때는 막상 광고에 없던 부가서비스와 고가 요금제 가입 조건을 요구한다.

여기에 단말기 반납이나 제휴 카드할인 금액을 포함해 설명하는 등 '불완전 판매' 유도가 성행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자 전문 광고사나 대형 플랫폼에 고객 모집을 의뢰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조정태 의원은 "매장의 개통 행위에만 국한된 이동통신 시장 관리 제도를 광고·알선·모집·중개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각 당사자의 책임 있는 보호조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SKB, 여행·미식·세대 담은 신작 3편 공개

‘트립 인 코리아’ 등 3편 순차 방송

SK브로드밴드는 가을 시즌을 맞아 신작 프로그램 3편을 순차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선보이는 프로그램은 한국살이N년차 외국인인 1박 2일 동안 국내 여행 가이드를 하는 '트립 인 코리아' (사진)다. 2023년 첫 공개 이후 올해까지 총 420편을 제작한 장수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즌의 가장 큰 변화는 여행을 안내하는 주인공이다. 한국인이 국내 명소를 소개하는 익숙한 구도에서 벗어나 한국 생활을 통해 자신만의 여행 취향과 경험을 쌓아온 외국인이 한국인 여행 가이드로 나선다. 출연자는 배우 오지호와 방



송인오정연 등이다.

이후음식에 담긴 삶을 조명하는 '미식의 조각, 한 끼'를 방영한다. 맛칼럼니스트박상현작가가지역을찾

아가한끼 메뉴에 담긴 기술과 삶의 철학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낸다. 또한 시니어 예능 '청춘학교2026'는 개그맨 정승환이 시니어 출연자들과 함께 추리를 주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추억을 회상하는 여정을 펼친다.

/조민선 기자

LG CNS, '에이엑스 싱크' 중심 역량 입증

〈업무 에이전틱 AI 서비스〉

IDC 평가서 '메이저 플레이어' 선정

LG CNS가 글로벌 시장 평가에서 비즈니스 솔루션 제품력을 입증했다. LG CNS는 'IDC 마켓스케이프: 2026년 전 세계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서비스 부문 벤더 평가'에서 '메이저 플레이어'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내 기업 중 최

초다. 해당 평가는 국내외 IT 기업들의 현재 사업 역량과 향후 전략을 종합 평가하는 벤더 분석 모델이다. 제품, 서비스 경쟁력 뿐만 아니라 고객 레퍼런스 및 실제 고객 경험 등을 분석한다. 이번에는 총 18개사가 선정됐다.

이같은 결과는 LG CNS의 업무 에이전틱 AI 서비스 '에이엑스 싱크'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서비스 역량이 주효했다. IDC에 따르면, LG CNS의 강점은 ▲AI 네이티브 플랫폼 ▲규제 산업 및 보안·광범위 환경 전문성 ▲고객이 검

증한 엔드투엔드 사업 수행 역량 등이다.

AI 네이티브 플랫폼 중 하나인 에이엑스싱크를 통해 정보 검색과 업무 지원부터 실제 업무까지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기업 업무 포털·그룹웨어부터 AI 문서 작성까지 다양하다. 또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금융·공공·제조 등 분야에서 에이전틱 AI 사업 경험을 축적한 LG CNS의 산업 전문성에도 주목했다.

마지막으로 고객 레퍼런스를 구축해 사업 수행 역량을 검증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에 참여한 고객들은 고객 비즈니스 환경과 산업에 대한 이해, 유연성과 대응력, 협업 방식, 인력의 우수성 등을 높이 평가했다.

LG CNS는 현재까지 다양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미국, 중국, 독일 등에 있는 그룹 계열사 사업장에 적용한 결과, 업무 생산성이 최대 40% 향상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수백억원 규모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조민선 기자